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0주일
제36권 38호(다해) 2016년 8월14일

[묵상]



<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불

불은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상태로 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이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태우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떨어져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불 속에서 타는,
갈등을 겪어야 한다.
낡은 것을 깨끗이 태워버리지 않는 한 새로움이란 기대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삶의 틀을 과감히 태우는 과정,
곧 고통과 박해와 분열의 과정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안녕은 자신을 태우는 데서 온다.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낡은 것,
죄악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데서 오는 것이다.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을 태우고
세상을 태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전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순자 레지나, 이용식 베드로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김윤업 & 장무등 & 김훈규, 라상옥, 박영식, 연옥영혼, 이중갑 부르노 & 김홍운 요셉, 신헌태 & 이효희마리아, 오웅학, 김계성 아가다 & 박희성 테레사, 김차옥 요셉 & 김복남마리아, 김문성 & 홍봉순 (생)박영식 안드레, 송율리안나 & 이승수 베드로 & 이상운, 김영숙 헬레나 & 반정이루시아, 윤희동 안토니오 & 윤남열 세라피나, 황윤재 베드로, 박정미 클라라, 이재숙 테레사, 민석준 토마스 & 미애 & 민영준 마르코 & 엔지 & 미아 & 니나, 손석 스테파노, 조정석 수산나, 김지원 임마쿨라파 & 김지민 마리아, 지경수 마테오 가정, 김지훈 대건안드레아, 장학금도네이션 해주신분들, 김임식 마누엘라수녀 & 오창근베드로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야(Jeremiah) 38,4-6.8-10

화답송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1-4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음 루카 (Luke) 12,49-53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1	241	230
봉헌	270	270	267
성체	287	287	287
파견	246	246	231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2. 천주교와 개신교

당시 조선에 나와 있던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은 자신의 선교지에 개신교가 전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개신교가 전래되기 40여 년 전인 1840년대부터 신자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하였다. 개항기 당시 조선 천주교는 개신교의 선교에 경쟁 의식과 위기 의식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1890년대로, 1900년까지 10년 동안 개신교는 급격히 발전한다. 1897년도의 통계에 따르면 당시 개신교인들은 6,800여 명이나, 1900년에는 13,569명에 이르고, 1905년에는 37,407명이다. 그리고 1907년에 이르러서는 개신교 신자 수가 72,968명에 이르러, 당시 63,340명으로 집계된 천주교 신자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당시 개신교 신자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다음 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표 5> 그리스도교 신자 증가표(단위: 명)

연도	천주교	개신교	연도	천주교	개신교
1897	32,217	6,800	1907	63,340	72,968
1900	42,441	13,569	1910	73,517	140,470
1905	64,070	37,407	1919	88,553	144,062

개항기 천주교와 개신교가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889년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 기근이 들자, 개신교 선교사들은 구호금을 건어 기민 구제에 사용해 달라고 천주교 선교사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었으니, 조선의 천주교는 개신교 선교사들을 선교에서 불로 소득을 노리는 무리 정도로 이해하였다.

물론 100여 년의 박해를 거쳐서 이제 막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천주교회는 순교의 결실을 거두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박해의 시련을 거친 바도 없는 개신교가 선교를 하겠다고 할 때, 이를 환영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천주교 선교사는 없었다. 그러나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개신교 선교가 천주교보다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천주교는 개신교를 이단이요 열교로 규정하며 「예수진교사패」와 같은 책을 간행하여 개신교를 경계하고 있었다. 또한 근본주의 신학에 기초하는 개신교 선교사들도 대부분 천주교를 배격하였다.

<계속>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12,51)

오늘 제1독서는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포위된 몇 달 동안 일어난 극적인 사건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빌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포위를 풀고 철수했는데 이것을 유다인들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주신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고, 예레미야는 거침없이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다시 돌아와 이 도성을 공격해 점령하고 불태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다수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민심을 흥흥하게 하고 백성의 사기를 꺾는 유언비어 유포자, 적을 이롭게 하고 민족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민족의 반역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은 격한 반감과 증오심으로 그를 왕에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는 급기야 자기 백성들로부터 대립과 불화의 원흉으로 지탄받고 생명까지 빼앗길 위협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 하시다가 반대 받는 표적이 되어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루카가 전하는 오늘 복음은 당신 죽음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행을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 당신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의 깊은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 사용하고 계시는 ‘불’과 ‘세례’라는 상징적 표현은 분명히 그분의 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수난은 완전히 살라버리고 정화시키는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길로 설명되기도 하고, 고통과 죽음의 깊은 물 속에 잠기는 침례적 행위로 설명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사랑과 철저한 가르침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루카 12,51)

예수님께서서는 참 평화를 주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요한 14,27)

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그래서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 평화가 깨져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서는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빛과 어둠, 사랑과 이기심을 싸움 불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때문에 한 가정 안에서도 식구끼리 서로 반대하여 갈라지는 일도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나 예수님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거짓된 평화와 타협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송인선 안젤라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오수딩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모승천 대축일미사 : 15일 (월)아침 8시30분

8월15일(월)은 '성모 승천 대축일' 입니다.
이날은 주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늘나라로 불림을 받아 오르신 것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7:30, 9:30, 11:00

◆ 본당 전진성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주교님
- 전진 교육 :영성피정 이수자
(6월2일~6월5일, 신앙성숙과 세신을 위한 영성피정)
- 전진신청 마감 : 8월 28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377-7063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77-7770

◆ 청소년 분과 봉사자 교육

- 주제 : 2016-17년도 일정과 성당 봉사에 대하여..
- 일시 : 8월 27일 오후 4시~6시 ●장소 : 강당
- 대상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청소년 분과 봉사자와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교우 분들
- 신청마감 : 8월 21일 까지 (310) 692-8755

*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므로 꼭 사전 신청을 하여주세요.

◆ 요셉회 8월모임

- 일시 : 8월 21일(주일) 11시미사후
- 장소 : 친교장
- 연락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교육

- 일시 : 9월 10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장소 : American Martyrs Catholic Church
624 15th Street, Manhattan Beach, CA 90266

◆ 배론 청년회 운영 자금 및 활동 예산 모금을 위한 펀드 레이징

- 일시 : 8월 28일 11시 미사후
- 팔빙수 : 1 개당 \$ 4, 3개 \$ 10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 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 명
- 밴드부 교사 1 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 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St. Margaret Mary Lomita Fair Volunteer 모집

St. Margaret Mary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원의 봉사자가 필요한 큰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중 시간이 허락되시는 교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봉사 일정 및 시간 : 9월 09일 금요일 오후 5~11시
9월 10일 토요일 오전11~오후11시
9월 11일 일요일 오후12시~9시
- 모집 인원 : 각 분야 별 00 명
- * 고등부는 Volunteer Certification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9회남가주 성령쇄신대회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20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장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14일 : * 토복1,2반(잔치국수 \$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합계
장인모 김기정 김상규 김선제 김순옥 김양금 김옥보 김 옥 김원모 김윤진 김일선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철민 남명자 류현옥 민정근 민성원 박미경 박씨니 박영희 박은모 박인식 박정희 박혜정 방정복 배태임 서용숙 성미선 손 석 송기철 양영자 오세원 우영희 원건희 윤선희 이근모 이근대 이상석 이영희 이은경 이은록 이재철 이현주 장영우 전정일 조소영 조화숙 주용순 지경수 차병용 최길주 최희태 하정화 현석주 황철수 한길선례	장인모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옥보 김원모 김윤진 김철민 남명자 민정근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서용숙 손 석 양영자 오세원 원건희 윤선희 이근모 이근대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현주 장영우 조화숙 주용순 지경수 차병용 최길주 하정화 한길선례	\$5,920
주일미사헌금 : \$2,566	2차헌금 : \$581	합계 : \$1,915
	감사헌금(최동한, 김정희): \$300	성물판매 이익금\$440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들 모으기

-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남가주 소식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일시 : 8월20일(토요일)
- 미사 : 11시, 식사 : 정오
- 장소 : 작은 예수회 LA분원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제 17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 11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가 원하면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천주교 한인중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KYCR New Life in the Holy Spirit Seminar

- 일시 : 9/2 (Fri) 4pm - 9/4 (Sun) 4pm (Labor Day Weekend)
- 장소 : 꽃동네 Kkottongnae Retreat Center
37885 Highway 79 S. Temecula, Ca 92592
- 회비 : \$150
- Contact: Jeane Yoon (한국어/Eng) 562-676-7933,
Esther Pak (Eng) 562-991-3489

소공동체 8 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유철희 바오로 8/10(수) 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릭 8/13(토) 오후6시30분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8/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인성 스테파노 8/13(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8/14(일)11시미사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8/19(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8/9(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8/21(일) 오후 6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4(일) 오전11시De Portola Park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남해나 베네딕다 8/12(금) 오후 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8/20(일)엘림온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8/13(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8/9(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미사후
-----	-----

성모님의 아름다운 군대를 아시나요?

1921년 9월 7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탄 축일 전야, 아일랜드 더블린시에 있는 빈첸시오 회관 마이러 하우스에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열망에 가득 찬 15명이 모였습니다. 마이클 토허 신부님과 프랭크 더프와 13명의 자매들이었지요.

그들은 첫 모임에서 중앙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상을 모셨고 양옆에 꽃을 꽂은 화병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 후, 다함께 무릎을 꿇어 성령께 간구하는 기도과 묵주기도 5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느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다짐합니다. 이 작고 소박한 모임이 레지오 마리아의 첫 모임이었고 그들은 마리아의(Mariae) 첫 군대(Legio)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지녔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으로 이어졌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행했던 모든 활동들은 레지오 마리아의 목적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막바지에 달했을 즈음, 우리나라에 도입된 레지오 마리아는 마침내 1956년 1월 3일 당시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의 매(梅) 에드워드 신부님에 의해서 대신동 본당(현 서대신)에 '영원한 도움의 성모' 프레스비디움을 창단하면서 부산교구에도 씨앗이 뿌려집니다. 이후 부산교구 마리아의(Mariae) 군대(Legio)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 27,000명의 행동 단원과 18,000명의 협조 단원이 성모님과 교회의 사업에 헌신하며 가톨릭 단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레지오 마리아가 부산교구에 도입된 지 6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환갑(還甲)을 맞은 레지오 마리아가 다시금 새롭게 각오를 다지며 거듭나려 합니다. 모든 단원들이 '한 번 더' 사랑하고, '하나 더' 늘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 더...' 사업에 전심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 선교, 교우 돌봄, 어려움을 겪는 자 돌봄, 본당 협조 등 다양성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레지오 마리아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신앙에 보다 매진하고자 하는 모든 분이 이 아름다운 여정의 길에 초대받고 계십니다. 모든 이의 어머니요 자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닮고자 하는 레지오 마리아는 두 팔을 활짝 펴고 여러분을 환영할 것이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모님의 군대로 복음 사업에 동참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각 성당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

[길을 찾는 그대에게]

말아미와 이야기하다 보면 저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어서 싸울까 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듯합니다. 이야기하자니 싸울 것 같고..., 하지 않자니 더 나빠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이해하기가

장 어려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집이 뭔가 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원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는 말을 'understand'라고 합니다. 'stand'는 '서다'라는 뜻이고, 'under'는 '아래'라는 뜻이니, '아래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뜻을 먼저 살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래로 선다는 말이 마치 물구나무를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구나무는 위아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나를 이해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뒤집어 상대방에 맞추어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이 같아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름을 용서하여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다름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가 되고, 나아가 오해라고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제가 오늘 제 아이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어, 그 아이 안에 계신 주님을 제가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아이를 이해하고 대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교리상식]

미사 때 신자들도 신부님처럼 성혈과 성체를 함께 모실 수 있나요?

☞ 미사 때 신자들이 성체와 성혈을 함께 모시는 것을 '양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중세부터 성체만 모셔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성혈을 흘릴 위험성을 막으려고 신자들에게는 성체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년~1965년)는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주교의 판단에 따라 특별한 경우 신자들도 성혈을 받아 모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 「미사 전례」

베드로 사도를 곤경에 처하게 한 여종

예수님은 대사제와 원로들이 보낸 무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험악하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체자들은 모두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쩡이서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취조하는 사람들이 손찌검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대사제 관저의 마당에는 종들이 불을 쬐며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여종 한 명이 다가와 무어라 말을 걸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6,67-69

여종 한 명이 베드로에게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고 다그치자 베드로는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롱나면 체포되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나가려고 하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6,-70-72

베드로는 슬그머니 문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여종 한 명이 다시 베드로에게 다가와 한참 동안 얼굴을 뻗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소리로 “아무리 보아도 맞아요. 체포된 사람과 한 패거리가 맞아요. 당신 분명히 예수와 함께 다닌 적이 있죠?”라며 베드로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큰소리로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어 밖에 나가 슬프게 울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태오 26,73-75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몸 붙여 살며 정의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기적인 이득만을 위해 행동할 뿐입니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도 바로 권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자신의 권력 영역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에게는 동정심도, 측은한 마음도 없으며,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고통을 못 본체한다면 여종의 어리석은 삶을 재현하는 셈입니다. 대사제 관저의 여종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우리의 숨겨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마태 26,72)

베드로는 “답이 올기 전에 너는 ()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마태 26,75)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손바닥에 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손바닥에 있는 점은 나쁜 점이라며 빼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아들 셋 낳을 손금이라 해서
셋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팔만 둘 낳았습니다.
손금대로 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모양입니다.
점은 아플 것 같아 안 빼기로 했습니다.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침/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운 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융자 / 매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 (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TV,가전제품

TEL: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16118 Halldale Ave.

Gardena CA90247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